

Japan Weekly Digest

2012. 3. 3. ~ 2012. 3. 9

☐ 금주의 이슈

- 국내 기업·금융기관의 엔화조달 확대
- 중국, 일본의 TPP참가 견제

☐ 일본기업전략

- 푸친 대통령 당선으로 일본기업 러시아 진출 기대
- 일본 일용품기업들, 소재까지 해외생산체제 강화

☐ 경제산업성 동향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ODA 활용
- TPP교섭중인 일본도 ISDS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 일본·중국 국제산업연관표 공표

☐ 보고서 리뷰

- 『일본·독일 비교를 통해서 본 일본무역구조의 과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3월3일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국내 기업·금융기관에서 엔화조달 확대

- 우리나라의 기업·금융기관들이 작년에 발행한 약 300억달러의 외화표시채권 중 엔화표시비율이 19%로 전년보다 8%포인트나 상승
- 최근 미국·유럽의 투자자들이 유럽재정위기의 심화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세계 제 3위의 채권시장인 일본에서의 조달을 가속화
- 국내 기업들이 엔을 무역결제에 사용하는 것 외에 달러로 바꿔 용자나 채권 상환에도 활용하는 등 일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간접금융도 늘고 있음
 - 작년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해외사업 확대에 따라 자금수요가 큰 국내 대기업그룹과의 거래확대를 겨냥, 서울에 용자 기능을 확충
 - 국내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이 실시한 최초의 대한 엔화표시협조융자로 210억엔을 조달

□ 중국, 일본의 TPP참가 견제

- 중국의 상무장관이 7일, 일본이 TPP참가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타 협력의 진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일본의 TPP참가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여 주목
- 중국은 한·중·일에 ASEAN을 포함한 13개국간 FTA체결을 주장, 미국 주도의 TPP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
- 중국이 한·중·일FTA를 서두르고 있는 배경에는 TPP쪽으로 축을 옮기고 있는 일본을 자기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 금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교섭 가속화에 합의한 데는, 한·중을 한·중·일에 선행시킬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을 초조하게 만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측은 분석
-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ASEAN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6개국간 FTA를 제안해 옴. 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이 제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일본이 TPP교섭참가를 결정한 이후 태도를 완화
- 미국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의 주도권을 잡으려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측은 분석하고 있음

◆ 일본기업전략

□ 푸친 대통령 당선으로 일본기업 러시아 진출 기대

- 닛산자동차는 2010년 11월 푸친 대통령이 수상시절 러시아 최대 자동차기업 아우토와즈사의 재건협력을 요청받은 바 있어, 푸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對러시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이미 르노가 아우토와즈에 25%을 출자하고 있으나 닛산도 출자, 르노-닛산 공동으로 주식의 과반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아우토와즈사와 교섭 중
 - 러시아의 자동차시장은 2008년을 피크로 약 290만대에 달함.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으나, 자원가격 상승 등으로 2011년에는 전년대비 39%가 증가한 265만대로 회복, 일본시장의 절반 이상 규모에 이르고 있어 잠재력이 큼
- 한편, 자원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 관련 사업이 많은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사할린의 석유·천연가스생산 프로젝트 「사할린2」에 참여
- 일본의 상사들과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푸친 수상이 대통령 재당선됨으로써 러시아 측이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 3」나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에 일본 상사들이 참여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

□ 일본 일용품기업들, 소재까지 해외생산체제 강화

- 일본의 일용품메이커들이 해외에서 핵심원재료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체제를 정비
 - 유니참은 금년 여름 중국에서 종이기저귀의 주원료인 부직포 생산공장을 신설하는가 하면, 라이온은 말레이시아의 공장에서 세제원료인 계면활성제 생산량을 확대
- 일본의 일용품메이커들이 일관체제를 구축하는 배경에는 對신흥국 수출확대로 미국·유럽기업과의 원재료 조달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임
- 유니참, 카오 등은 아시아에서 생산량이 일본내 생산량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생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 본격적인 글로벌경쟁을 맞아 내수기업들도 소재단계에서부터 뛰어들어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 경제산업성 동향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ODA 활용

-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해외사업지원 대강」 개정안을 결정.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지원을 위해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연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것 등이 골자임
- 동 대강은 작년 6월 수립. 개정안에서는 ▷일본 고유문화나 기술을 살린 마케팅지원 강화,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자본의 내실화 ▷인재육성 강화, ▷ODA 활용도 포함한 현지 사업환경정비 등을 추가
- 관련 부처, 지원기관 등이 연대하여 농지개발, 물인프라·환경 등의 ODA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제품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일본 레스토랑을 통한 일본 음식문화 보급 및 식품수출 지원, 기업의 자본 증강 지원 등을 실시

□ TPP교섭중인 일본도 ISDS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 일본도 TPP교섭과정에서 「ISDS(투자가와 국가의 분쟁해결)조항」에 신경을 쓰고 있음. 국영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폐·완화하자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 국영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철폐·완화안은 토지취득이나 용자에 관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미국이 작년 10월 페루 회의에서 제안
- 9개 TPP교섭 참가국들 중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신흥국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도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정부는 보고 있음
- 일본정부의 100%출자는 아니지만 국가의 신용을 배경으로 우대를 받고 있는 예로, 일본우정그룹의 보험사업 감독체제, 국제속달우편(EMS)의 세관절차 등이 있는데, 일부 참가국들이 이를 문제시하고 있음

□ 일본·중국 국제산업연관표 공표

- 경제산업성이 일본과 중국의 산업간 관련성을 타나내는 「2007년 일·중 국제산업연관표」를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공표
 - 산업연관표는 일본·중국간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여러가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데, 해외수요에 의한 일본의 생산유발액중 1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경산성은 독자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의 연관표를 작성, 발표

◆ 보고서 리뷰

『일본·독일 간 비교를 통해서 본 일본무역구조의 과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3월3일

□ 교역조건에서 차이

- 독일에 비해 일본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독일의 교역조건은 안정적인 것이 큰 특징. 통상 자원가격의 영향을 수출상품에 전가하거나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교역조건이 안정될 수 있음

□ 무역상품구조에서 차이

- 자원수입국인 독일은 무역상품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생산단계별로도 중간재·최종재 수출 모두 세계 수요와 차이가 적은 데 비하여, 일본은 중간재 수출에 편중되어 있어 가격인하 압력을 받기 쉬움
- 일본의 수출확대는 아시아 국가들과 노동력이나 기계설비 등의 생산조건 차이에 기초한 수직적 산업내 무역에 의한 부분이 큼

□ 부가가치 유발구조에서 차이

- 무역수지와 수출입에 의해 유발되는 파급효과나 부가가치를 계측한 결과, 경제규모에 비하여 해외로 누출부분은 일본이 적음. 그러나 일본은 생산액보다 부가가치면에서 해외누출 부분이 크고 최근 10년간 해외로 누출이 확대됨
- 이에 반해, 독일은 비록 일본과 같이 해외누출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다름
- 또한, 글로벌화 추세 하에서도 내수에 의한 생산이 유발되고 있는 독일의 상황은 내수침체로 허덕이는 일본과 크게 다름

□ 시사점

- 글로벌경쟁하에서 일본은 신흥국의 추격으로 경공업분야에서 집약화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수출산업에서는 그나마 수직적 산업내 분업에 의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집약화의 진행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음

- 그러나 과거 일본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고성장기업이나 산업의 교체, 신진대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 최종재 등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내수확대가 향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키를 쥐고 있음.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 글로벌 수요에 합치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제품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내외 M&A 등에 의한 기업규모 확대를 통하여 산업의 재편 및 신진대사를 추진해나가면서, 중간재 단계에서부터 브랜드력을 높이고 수출상품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출처: 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1_261.pdf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1) 『2007년 일·중국제산업연관표』 경제산업성, 3월3일

*출처: <http://www.meti.go.jp/statistics/tyo/kokusio/nittyuu/2007nen/ws-2-8.pdf>

(2) 『일·독간 비교를 통해서 본 일본무역구조의 과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3월3일

*출처: 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1_261.pdf

(3) 『빅데이터시대의 서플라이체인 혁신』 노무라종합연구소, 3월6일

*출처: http://www.nri.co.jp/opinion/it_solution/2012/pdf/ITSF120304.pdf

(4) 『서평 : 일본의 모노즈쿠리:경쟁력기반의 변천』 일본정책금융공고, 3월6일

*출처: http://www.jfc.go.jp/common/pdf/ronbun1202_05.pdf

(5) 『오오사카도 구상에 관하여』 일본국회도서관, 3월7일

*출처: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3485923_po_0740.pdf?contentNo=1

(6)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투자』 미즈호종합연구소, 3월8일

*출처: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as120307.pdf>